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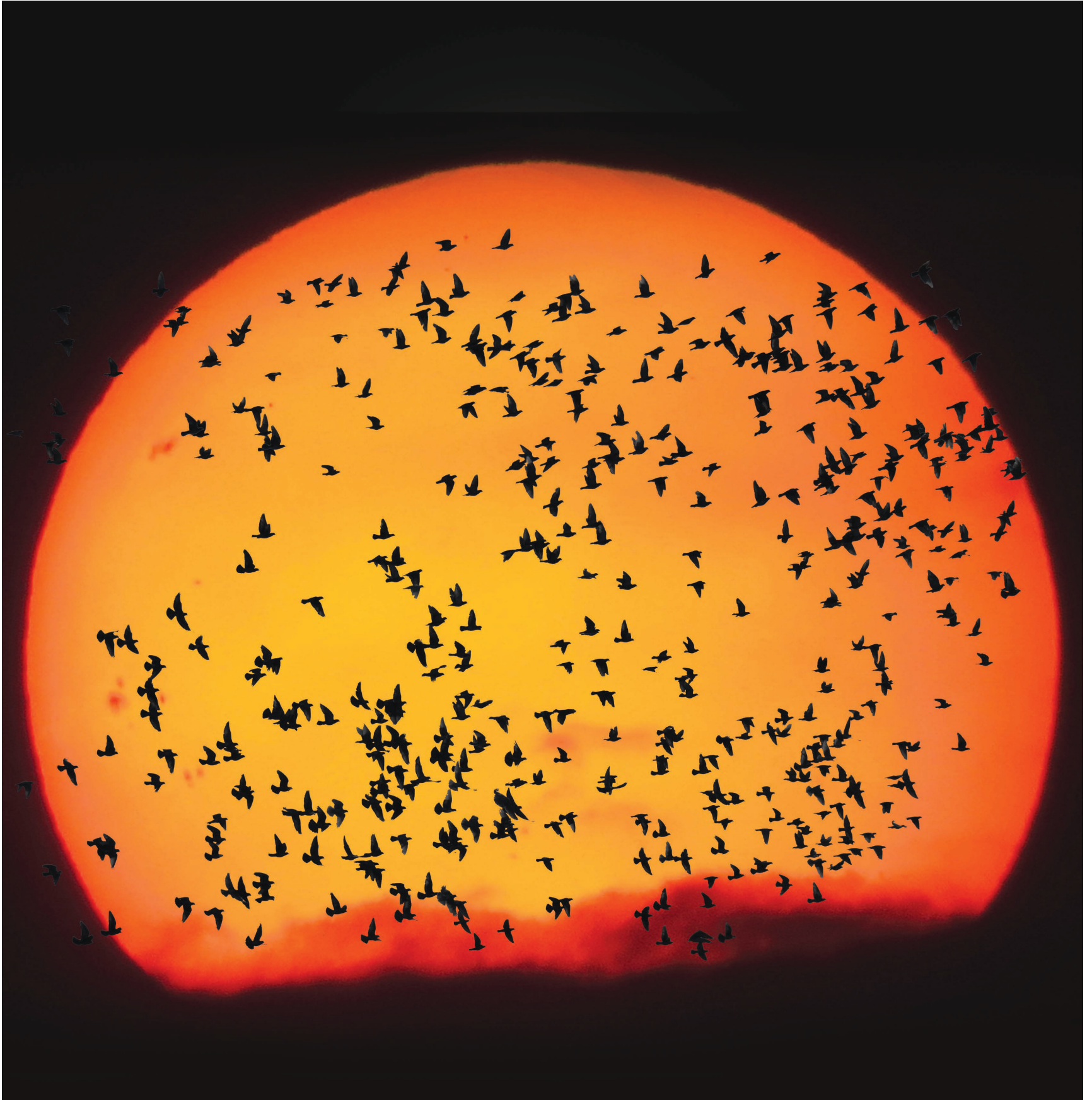


오늘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_마태복음 1:23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 | 신년 특집 | 4 | 교단 소식 | 6 | 부임, 사임인사 |
| 3 | 교회 소식 | 5 | 사역 간증 | 7 | 목회 칼럼 |



모임과 흠어짐

해가 저물면 저마다 머리 둘 곳을 찾던 새들도 날이 밝으면 먼 곳으로 날기 위해 한데 모입니다. 2021년 한 해, 출렁거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 사회가 모임과 흠어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흠어지니라”(사도행전 8:1)라는 말씀에서 이방 전도가 시작된 것과 같이, 모임에도 흠어짐에도 항상 작동하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한 해를 마감합니다.

함글함글

한해 특집을 마무리하며

2021년 ‘가족이 신앙교사입니다’라는 교회 주제에 맞추어 신년특집으로 현직 아버지이며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은 함글함글 기자가 쓴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와 신앙교육에 대한 좋은 책에서 명문장을 뽑아 소개하는 ‘책속의 명문장’을 연재해 왔습니다. 이번 호로 마무리합니다.

함글함글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

아이에게 배우는
집사아빠

배움을 실천하는 자리로

“아빠! 오늘 자기 전에 책 읽어줄 수 있어?” “응~ 얼른 잘 준비 끝내놓으면 읽어줄게~” “아빠! 빨리 준비할게”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 엄마도 책을 잘 읽어주지만 아이들은 아빠가 읽어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 등장인물마다 목소리를 바꿔가며 상황에 맞게 읽어주기 때문이다. 가끔은 오버하면서 읽어주기도 하고 내용에 따라 노래를 부르거나 행동을 해가며 읽어주기도 한다.

사실, 아이가 태어나고 내가 제일 먼저 공부해서 자격증을 딴 것이 “유아독서지도사”였다. “유아독서지도사”를 공부하면서 독서와 책에 대해 많은 내용을 배웠다. 그 내용들이 다 기억나지는 않는다. 다만,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있었다. 성우에 버금가는 다양한 목소리로 동화구연처럼 읽어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수업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연습하기는 했지만 처음 책을 읽어줄 때는 그게 잘 안되었다. 분명 앞에서 꼬마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읽어줬는데, 뒤쪽에 그 꼬마가 다시 나왔을 때 앞에서 어떤 톤으로 목소리를 표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등장인물이 많으면 목소리들이 헷갈렸다. 할머니 목소리로 읽었는데 알고보니 엄마의 대사였고, 밝은 목소리로 읽었는데 우울한 기분으로 말해야 하는 부분이였다. 그런데, 책을 계속 읽어줄수록 나름 목소리도 다양하게 낼 수 있고 또 책 내용도 미리 파악해서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생각을 했다. 아이들이 없었으면 내가 “유아독서지도사”라는 거 자체를 찾지 않았을거고,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받았더라도 꾸준히 책을 읽어주지 않았다면 배운 것을 이렇게 잘 활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주님의교회에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 특히 “가정이 신앙의 주체”라는 표어 아래에 뷰티풀페어런팅센터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부모학교’, ‘가정에배학교’, ‘마더파더와이즈’등 가정과 관련된 교육도 있고, 가정과 교회와 교회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프로그램인 ‘세움학당’도 있다. 교회에서 배운 여러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생각이 들었다. 머리로 배운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가슴에서 다시 손과 발로 가지 않으면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부한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 삶으로, 사역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배움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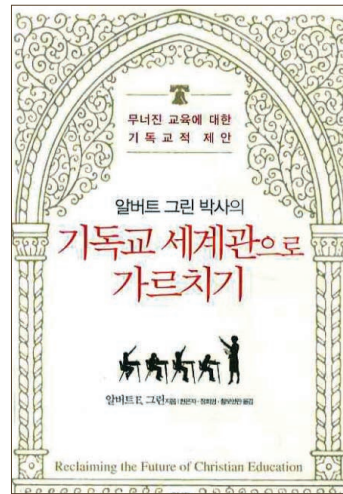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냥 학부모가 아닌 기독교학부모의 자리, 가정에서 예배자의 자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지혜로운 아버지의 자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의 자리.

아이들이 그 시간, 그 자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겠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1년동안 써오던 ‘아이에게 배우는 집사아빠’를 마무리합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준 큰 아이 승혁이와 작은 아이 승준이에게 감사하며, 무엇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책 속의 명문장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알버트 E. 그린, 현은자, 정희영, 황보영란 옮김, CUP

● 기독교적인 마음의 또 다른 측면인 기독교적인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실재 이상으로 소망하는 목표이다. ● 우리가 어린이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수록 어린이를 교육하는 우리의 노력은 더 축복받고 성공할 것이다. ● 가정이나 기독교 학교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사치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대체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이다.

●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할 책임이 있는 기쁨 부은 바 된 공동체이다. ● 만일 기독교교육의 목표가 성령의 은혜로운 역

사를 힘입어 부모가 그리스도인인 자녀들의 마음과 가슴에 성경적 의식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성경적 의식의 중요한 요소를 간략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가치로운 일이다. ●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적인 인생관과 실재관을 가진 교회로서 깨어있기를 시도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학교에서건 혹은 기독교 가정 학교에서건 간에 변화된 성경적인 의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키게 될 것이다. ● 기독교 정신은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의 주권이 인간의 의식과 실재의 전 영역에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 창조세계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들은 그들의 재능을 따라 창조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받아야 한다. ● 모든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실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라게 한다. ● 창조된 세계에 대한 공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데 직접적이고도 강력하게 기여할 수 있으며, 그렇게 의도된 것임을 단언한다. ● 기독교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다는 주장으로부터 시작된다. ●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 주심에 달려 있다. 우리는 또한 참된 지식 안에서 사랑이 차지하는 위치를 인식하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유지하신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경외심, 사랑, 찬양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그분께 응답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 기독교적 지식관에 있어서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이 담기지 않은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 하나님은 가치가 없거나 의미없는 것들을 창조하지 않으신다. 그가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낸다.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 그분의 벗이 되는 것,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리스도인 교사로서 우리는 학생들이 현대인들이 실재를 보는 방법과는 매우 다르게 실재를 납득하는 대안 의식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 창조세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교육과정에서 어떤 과목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 없이 적절하게 연구되어질 수도 가르쳐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이거나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교회 소식

교구연합기도회 및 감사의 밤

2021년 12월 1일, 수요일 오후 7시 20분 겨자씨 모임을 종강하면서 교구 연합기도회 및 감사의 밤이 진행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구 리더와 겨자씨 인도자로 섬긴 분들을 축복하였고, 각 교구별로 흩어져 모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했던 교구 가족들이 잠시 동안 함께 모여 감사와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 주님의교회 각 겨자씨들의 모습을 담은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4화)는 주님의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줄함울



교회 소식

성탄가족예배

2021년 12월 19일 주일 오후 1시 성탄가족예배가 본당에서 드려졌다. 유유청청 주관으로 “작게, 낮게, 아래로”라는 주제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했다. 성탄가족예배는 유아숲, 유소년숲, 청소년숲, 청년숲에서 준비한 순서와 영상 등으로 꾸며졌다. 성탄가족예배 실황은 주님의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함줄함울

함줄함울 시평
돌아켜본 2021년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함줄함울>의 2021년은 431호로 문을 열었습니다. 소복하게 눈 내린 날, 청량한 겨울 하늘 아래 교회 전경을 담고, 다시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딛자는 글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삶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글로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기독교인을 격려하기 위해 처음 공모한 ‘함줄함울 신춘문예’로 권사님 한 분이 ‘교회 내 등단’을 하셨습니다. 십 년 이상 잘 자랐던 크로톤 화분이 재택근무로 빈 주말 휴한에 얼어 무지개다리를 건넜지만, 그 차가운 겨울 비대면 예배에도 유유청청 푸른 나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유유청청을 위한 백일장도 열었습니다. 유아숲부터 청년숲까지 열 명의 수상자가 탄생했고, 대면 예배가 열린 12월에 늦은 시상을 했습니다.

창간호부터 지난 함줄함울 기사들을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자원하신 사역자들을 모셔서 텍스트 입력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바쁘신 일상 가운데 한 호 한 호 지금도 기사를 일일이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는 중에도 지난 해에 이어 코로나19의 여파는 계속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와 제한된 대면예배가 반복되었고, 비전트립도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신앙은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2021년 교회의 헌금은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보다 오히려 늘었고, 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과 실시간 예배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4천 명은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말 사나운 바람에도 아니 흔들리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모임에 연연하지 않고, 흩어짐에 당황하지 않으며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 실천해야 하겠지요.

혹시 우리가 비대면의 장막에 가려 각각의 동굴 속으로 숨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전히 비대면 상황을 억압의 구조로만 보아 그 속에 숨어 있는 주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주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흩어놓으신 이유가 우리가 처한 곳마다 이웃한 많은 이들의 어려움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라는 뜻은 아니었을까요? 샘이 깊은 물은 흐르고 흘러 바다에 이릅니다. 동굴 속에 고여있지 않고 넘치고 넘쳐서 이웃의 뿌리까지 촉촉하게 적시는 우리가 되기를, 세월에 이르러 다가온 새해를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함줄함울

사역 후기
(사)섬김과 나눔

어려우신 분들께 겨울 선물을 나누어 드리면서

겨울이 열린 첫 길목, 날씨가 추운 12월 13일 월요일, 마천동 거여동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교회 부설 (사)섬김과나눔에서 겨울 동면기를 맞아 선물 124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봉사자들은 세 팀으로 나누어 드렸는데 저는 마천2동에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예전에 남천경로당 무료급식을 하며 다녔던 남한산성 기슭에 있는 동네, 코로나19로 2년을 쉬면서 경로당 무료급식 봉사가 끝나 오랜만에 가본 그곳, 꽃보다 뜨겁게 타오르던 만산홍염은 이제는 어디서도 볼 수 없고 분위기가 스산합니다. 예전에 다니며 눈을 감고 다녀도 익숙하던 경로당 오르막길 주위에 앙상한 뼈대 같은 나뭇가지들만 내일의 전열을 가다듬듯 결연한 자세로 찬바람을 맞습니다. 봄에는 연녹색의 새순을 보이다가 여름에는 녹음 짙은 푸르름을 자랑하고 가을에는 화려한 단풍을 뽐내다가 겨울이 오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낙엽에게서, 모진 삭풍과 추위를 이기고 내년엔 다시 새순으로 싹틈을 기약해봅니다. 그때는 코로나19가 소멸이 되어 정상으로 돌아가려는지? 하지만 요즘은 더 심각한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오르막을 올라 소담한 박스에 담겨진 선물과 따로 준비해간 두툼한 내복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인기척에 문을 여니 어르신들이 요양봉사자가 차려준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로당 무료급식에서 점심식사를 하시던 분이십니다. 나를 보더니 반갑게 맞이하더니 눈에 눈물이 맺혀

밥을 드시던 수저를 놓으십니다. “내 얼굴이 기억이 나세요?”하고 물으니 “왜 생각이 안 나겠어? 몇 년을 점심을 먹었는데”하십니다. 어르신께 인사하고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오며 다음 집으로 가기 위해 또 다른 박스를 어깨에 올려놓고 생각에 잠겨봅니다. 항상 그랬던가, 하고 나면 뭔가 놓치거나 뒤늦게 안타까워하며 허둥대는 회한 따위를 더 많이 일생 동안 끼고 살아왔지 싶습니다. 올해도 원하던 사랑이나 이루고자 했던 꿈은 먼 산 너머로 흘러갔는지 손안에 쥔 것이 텅없이 없고 가슴은 허전합니다. 여러 고민만 하고 살아온 듯 느끼면서, 세월의 무게와 상황의 변화를 변명 삼아 넘어온 탄식의 반복을, 그렇게 ‘잠시 세월이’가버린 것인가? 아니 가버릴 것인가? 그런데 가는 세월은 오지도 않고 이미 다녀간 것인가? 봉사를 마치고 집에 오며 오늘 선물 나눔에 참석을 한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선물을 더 좋은 선물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주신 사랑을 그냥 몸으로만 은혜롭게 그분들에게 우리들 손과 발로 사랑을 전해드렸다고. 그리고 선물을 마련해주신 교회에 감사를 드린다고. 그리고 오늘 뵈 어르신들 겨울 잘 지내고 따스한 봄에 다시 뵙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간들 봉사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형설 정로

교단 소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개정 헌법 시행

21세기 교리문답과 아동세례교인 신설, 전도목사 임기 2년 연임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개정 헌법이 11월 29일 96회기 2-1차 임시임원회에서 선포되었다. 헌법 교리 개정은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제107회 총회 보고 후에 실시될 예정이다. <함글함글>에서는 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2021년 12월 7일)에 보도된 개정 헌법 해설 기사를 전재한다.

함글함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개정 헌법이 총회 결의와 노회 수의과정을 거쳐 총회장의 선포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대의 요구에 교회가 응답한 결과물인 개정 헌법은 교리와 정치, 권징, 그리고 개정 헌법을 뒷받침해 줄 헌법시행규정 등 헌법 전반에 이른다.

새로운 교리문답 제정

우선, 교리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이 때에 그 응답으로 새로운 교리문답이 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교리 부분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을 새로 제정하는데 맞춰졌다. 지난 제101회 총회에서 '요리문답' 개정을 결의하면서 시작된 교리 개정은 당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언어로 바꾸는데 역점을 뒀다. 그러나 이후 5년간 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소요리문답'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그대로 두는 대신, 우리 교단에 걸맞은 새로운 교리문답을 추가로 제정하기로 하고 그 결과물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을 내놓았다. 오늘날 교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은 교회에서 세례자와 새신자 교리교육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교리문답은 총회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총회장이 오는 제107회 총회에 보고한 후 시행된다.

아동세례교인 신설

시행에 들어간 개정 헌법에는 신앙의 대잇기와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의 노력도 담았다. 정치편 개정 헌법 중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아동세례교인' 조항의 신설이다. '아동세례교인' 신설은 아동들을 교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성례전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법적인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이미 해외 교단에선 '아동세례'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 헌법이 침체된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음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대안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회들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19로 미뤄왔던 세례식을 거행할 것으로 예상돼 신설된 '아동세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아동세례교인 신설에 따라 유아로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세대의 성례전적인 삶이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교인을 구분하는 나이도 세분화했다. 유아세례교인은 만 6세 이하로 유아세례를 받은 자, 아동세례교인은 7~12세 이하로 세례를 받은 자, 세례교인(입교인)은 유아세례교인으로서는 입교한 13세 이상과 원입교인 13세 이상으로 세례 받은 자로 구체화됐다. 또한 유아세례자는 입교를 하지만 아동세례자는 자신의 신앙고백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를 하지 않는다. 또한 제104회 총회에서 유아세례자의 성찬참여가 결의되고 총회장의 선포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아동세례자를 포함한 전세대가 성찬에 참여하게 됐다. 아동세례자 신설에 따라 교육자원부에선 전국교회에서 활용할 '아동세례 문답집' 발간을 앞두고 있다.

전도목사 임기 규정

목회 현장이 다양해짐에 따라 목사의 칭호와 자격에 대한 규정도 다양해졌다. 우선, 전도목사의 임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무분별한 전도목사의 운영을 막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할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헌법엔 "전도목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군종목사 안수자격 요건 완화

또한 군선교 활성화와 본교단 파송 군종목사 파송 확대 차원에서 군종목사 안수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문호도 개방됐다. 그동안 군종목사가 되기 위해선 본교단 직영 신학대학교 재학 중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고 본교단 직영 신학대학원 재학 중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안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헌법에 따르면, 총회 산하 신학대학뿐 아니라 일반대학 기독교 관련 학과에서 본교단장 추천을 받은 자도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할 경우, 대학 4학년 재학 중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본교단 신학대학원 재학 중 군종목사로 안수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사고노회로 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해당 노회와 총회군경교정선교부가 협력 주관으로 군종목사 안수식을 거행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도 마련됐다.

노회원 자격 변경

이와 함께 이번 개정 헌법에는 그동안 목사의 칭호에는 있었지만 노회원 자격에는 제외됐던 교육목사와 군종목사, 유학목사가 노회원 자격에 포함됐다. 또한 각 노회들마다 선교 목사를 노회 제적 수에 넣는 근거가 달라, 이를 통일시키는 차원에서 '선교목사 재적수 산정은 노회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이 단서조항으로 포함됐다. 그리고 교육목사와 유학목사, 무임목사는 노회 언권회원이 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총회 재산 관련 규정

마지막으로, 총회 재산을 보존할 법적 장치를 마련한 부분도 관심을 끈다. 개정 헌법엔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가 폐쇄될 경우에 그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총회 차원에서 7개 신학대학원 구조조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 헌법은 총회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로 보여진다. **한국기독교공보 김성진** 기자



사역 간증
미혼모 선교

믿음의 딸과 손녀를 주신 하나님

결레같은 인생들을 행주처럼 쓰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외로울까봐 손녀도 주시고 믿음의 딸까지 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까.

엠티 어린 소녀가 찾아왔다

톨스토이 작 <부활> 영화를 보면 카츄샤가 재판관을 받을 적에 재판관이 카츄샤에게 이런 말을 한다. 당신이 수녀 같으면 당신 말을 믿겠는데, 당신이 창녀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 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선교하는 사역지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 해주지 않는 윤락가 뒷골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선교사무실에 나이가 열여섯 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엠티 어린 소녀가 찾아왔다. 처음에는 어린 소녀가 상담을 하러 왔다는 생각보다는 가출 소녀로만 생각했다. 그 아가씨 이름은 혜진이었다. 혜진과 상담을 하던 중, 나는 내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혜진이 또한 나처럼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을 전전하다 세상 사람들의 유혹으로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했다.

혜진과 내가 다른 점이 있다면, 혜진은 어린 나이에 임신한 것이고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것이었다. 혜진은 임신을 해서 석 달이 넘게 어린 생명을 품고 있었다. 당장은 아이를 낳기 싫다고 했다. 나보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는데 도와달라는 것이다.

나는 혜진에게 윤락가 생활을 청산하라고 권유했으나, 혜진의 생각은 아직은 윤락가를 떠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만 지우고 싶다고 했다. 며칠동안 생각할 시간을 갖자 하고, 혜진과 헤어졌다.

자식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철없는 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만일 예수님이라면 혜진에게 어떤 말을 해줬을까 고민했다. 창백한 얼굴로 마네킨처럼 진열대에 서 있는 혜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품처럼 자기 육체를 도구 삼아 살아가는 혜진의 모습도 가엾기도 했지만, 아무 것도 모른 채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생명 또한 생각하니 가슴이 저며 왔다.

자식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한다. 나 또한 그 옛날 죄악이 무엇인지 모르고 죄악된 세상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때 나에게 따뜻한 사랑의 땀은 손길이 있었다면 수십 년 동안 국적 없는 입양 고아로 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고민하다 주님의교회의 신화식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기로 했다. 목사님은 한 마디로 어린 생명을 지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발걸음이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모르겠다. 만일 혜진이가 내 혈육이었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 나는 분명히 아이를 낳지 말고 지우라고 했을 것이다. 아비 없는 자식, 아직도 피어보지 못한 어린 나이에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살아 갈 혜진이 짊어지고 살아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보였다.

며칠 후 혜진이가 초췌한 얼굴로 선교사무실에 찾아왔다.

“아줌마, 언제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나는 할 말이 없어 머뭇거리다 “혜진아! 윤락가를 나와서 아줌마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 어떨겠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줌마, 집은 어딘데요?”

“수원인데, 영구 임대아파트야. 넓지 않지만 혼자 살고 있어. 나도 혼자라 외로운데, 네가 좋다고 하면 나를 이모처럼 생각하면 어떨겠니?”

혜진이는 내 말을 듣고 마음이 동요하는 것 같았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서 내 모든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혜진이는 내 이야기를 듣고 “아줌마도 나처럼 기구한 운명이네요. 아줌마, 나는 아직도 담배도 피우고, 예수도 안 믿고, 주인 아줌마한테 빚도 있어요.”

“담배는 차차 끊으면 되고, 예수는 믿으면 되고, 빚은 네가 성공해서 갚으면 되는 거야.”

“아줌마, 내가 도망가면 주인이 아줌마를 귀찮게 할 거예요. 삼촌들 시켜서 여기 선교 사무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외로운 사람끼리 의지하면서 재미있게 살자.”

혜진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내 품에 안겨 흐느꼈다.

“정말 너무 외로웠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이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울고 있는 혜진을 일으켜주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병원에 가서 낙태 수술을 하던지, 나아서 키우던지 네가 결정할 문제라 말해줬다. 인생이란 것은 그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는 것이고, 혼자서 가는 것도 인생이라 일러줬다. 또 남자를 만나더라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알려줬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혜진아. 아줌마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어봐! 그분은 우리를 배신하지도 않고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도 항상 옆에 계셔. 사람은 유익이 없으면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너도 나처럼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봐.”

혜진을 집으로 데리고 가기 전에 강남기도원으로 먼저 갔다. 혜진은 삼일 췌 되는 날 많은 눈물을 흘리고 다시는 음지에서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나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딸

세상 사람들은 혜진을 미혼모라 부르겠지만, 갓 돌이 지난 보미에게는 위대한 엄마이다. 요즘 자식을 낳고도 키울 수 없어서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비록 음지에서 인생을 살았지만, 열아홉 어린 나이에도 보미에게 젖꼭지를 물리는 그 모습은 아름다워 보였다.

누가 보미 엄마에게 뒷골목 여자였다고 돌을 던질 것인가. 혜진은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혜진이가 아이를 지웠더라면 살인자라는 죄책감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결레같은 인생들을 행주처럼 쓰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외로울까봐 손녀도 주시고 믿음의 딸까지 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까.

이드보라 권사

부임 인사

할렐루야, 인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유아숲의 정은영입니다. 주님의교회 가장 사랑스런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현장 예배가 열리던 12월 5일! 엄마아빠 손잡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의 초롱초롱 눈망울과,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들어오시는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절로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우리의 귀한 다음세대인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잘 자라가도록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은영 목사 / 유아숲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역자



샬롬! 안녕하세요! 2021년도 12월부터 유소년부 초등1부와 어와나 티엔티를 섬기게 된 권동준 전도사입니다. 먼저 저를 주님의교회 유소년부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소년부 아이들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

시는 유소년부 아이들과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유소년부 초등1부와 어와나 티엔티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동준 전도사 / 유소년부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배우며 낮은 자세로

안녕하세요. 12월에 부임한 유소년부(유년 1,2부, 어와나 스팅) 김경민 전도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 배워가고, 함께 이루어가는 소중한 사역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꾸밈없이, 아는 걸 안다고 외치고, 부끄럼 없이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배우며, 낮은 자세로 그러나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가치를 전하며 아이들과 기쁘게 예배하고 교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함께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 한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민 전도사 / 유소년부

다음세대 양육하는 귀한 자리



안녕하세요. 소년 1부, 소년 2부의 이수민 목사입니다. 신앙의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자리에 함께하여 힘을 보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2022년 되도록 함께 기도와 사랑을 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수민 목사 / 유소년부

사임 인사

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장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교회 6년이라는 임기를 이제 마칩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정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제 사무실의 책과 집기들, 세간살이를 정리하고 지난날의 여러 사역들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활보하였던 공간들과도 이제 이별해야 하고, 무엇보다 여기에서 함께 쌓아온 많은 소중한 관계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훌가분함보다는 아쉬움이 더 큼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가야할 텐데요. 그동안 이곳에서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를 새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더 커다란 주님의교회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고맙습니다.



허준 목사

이웃에게 귀퉁이 한쪽을 남겨두는 목회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13년 첫 부임 인사 후 전도사로 3년, 부목사로 6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교회에서 배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긍휼, 그리고 섬김을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이웃에게 귀퉁이 한쪽을 남겨둘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은석 목사

본질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

주님의교회에서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매우 값진 의미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배우고 성도님들을 통해 섬김과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것들이 영양분이 되어 저를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값진 배움을 기억하며 본질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준 목사

목회 칼럼

어머니의 새벽기도로 이겨낸 고난과 실패

삼수를 시작하려던 서울에서의 첫날 밤,

다스릴 수 없는 인생에서 만나는 암담한 상황과

쉽지 않은 인생의 무게에

고시원의 작은 방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어떻게 불안한 내 마음을 아셨는지

문자를 한 통 주셨다.

“잊지 마!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누군가 인생을 시험의 연속이라 했었지. 나는 대입수능시험을 제외하면, 대부분 두 번 이상의 시험을 치르며 살아왔다. 부끄럽지만 운전면허시험 까지도 말이다. 내 인생은 실패와 늘 맞닿으며 실패수련의 인생을 살아왔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실패의 자리에 다시 나아가, 같은 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것만큼 자존감을 낮추며 비참한 일은 없다. 고난과 슬픔이 갈마드는 인생길에서 방황하던 나의 삶은,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절망을 맛보았다. 실패와 고난은 나의 다른 얼굴을 보여 주었다. 평안할 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진 나의 흉칙한 본성과 인격을 보게 해주었다. 실패로 인한 고통은 내 삶을 자꾸만 정지 상태로 만들었다. 인생의 실망되는 일을 기도해 힘쓰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았을 것을, 고난과 초라함의 자리를 견딜힘이 없던 그 시절 나는 하루하루가 괴로웠다. 계속된 실패를 감당하지 못하던 어느 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인간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실패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시간에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실패의 시간을 허락하셨음이 믿어졌다. 실패를 경험하며 나는 인생에 관해서 무지하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사실 고난과 실패처럼 인생을 잘 깨우쳐 주는 것도 없다.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삶, 그 불안정한 상황이 인생임을 나는 온 몸으로 체득하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 정말 그러하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삼수 끝에 어렵게 입학했다. 핑계를 좀 대자면 학부를 졸업하기 전 11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바로 시험을 한 번 쳤다. 하지만 신대원 입학시험에 세 번을 응시했으니 삼수가 맞는 셈이다. 학부 졸업 후, 나는 고향을 떠나 서울의

좁은 고시원에서 만 2년을 혼자서 지내며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던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다.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홀로 지내던 날들은 정말 쉽지 않았다. 당시 마음의 여유가 없고 불안했던 나는 멀리 계시는 어머니께 늘 얼마나 무례하고 까칠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때가 죄송해 늘 목이 메어온다.



장신대 신대원 입시 삼수를 시작

하던 2009년, 마음의 여유가 없던 나는 1월 초 어머니의 생신과 설날 명절도 뒤로한 채 고향 교회에서 송구영신예배만 드리고 훌쩍 서울로 다시 올라왔다. 그렇게 삼수를 시작하려던 서울에서의 첫날 밤, 다스릴 수 없는 인생에서 만나는 암담한 상황과 쉽지 않은 인생의 무게에 고시원의 작은 방에서 혼자 한 참을 울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는 어떻게 불안한 내 마음을 아셨는지 문자를 한 통 주셨다. 그리고 그 문자는 아직도 내 핸드폰에 복사되어 저장하고 있다.

“사랑하는 시영아. 너무 잘하려고 하지마. 엄마 네가 행복하면 된다. 잊지 마!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사랑해 우리 아들.”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던 3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금식하며 기도해주신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너무 너무 보고 싶은 연말이다. 한 해를 돌아보며, 엄마가 그렇게 원하시던 좋은 목사가 되어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오늘도 올 엄마 보러 갈, 그 날 아침 거기서, 그 하늘 소망을 더 품어본다.

내년이면 벌써 4년째 8교구 사역을 맡게 된다. 육신의 가족을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이셨지만 육신의 가족을 넘어 영적인 가족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해본다. 그리고 엄마의 바램처럼 선한목자가 되어 우리 주님의교회 8교구 믿음의 식구들을 더욱 사랑하고 더 성실하게 섬겨야겠다며 다짐해본다.

한시영 목사

사역소식

국내선교위원회

군경선교팀 성탄선물 전달

국내선교위원회 (군·경선교팀)에서는 매년마다 전방부대에 진중세례식 지원과 군 대대급 부대에 민간 목사님을 통해 후원을 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부대출입이 제한되어 진중세례식행사를 하지 못했지만 올해 계획된 각급 부대별로 일정에 맞추어서 군종목사님을 통하여 장병들에게 진중세례식을 실시했다.

2021년 12월 13일 제3집회실에서 배운환 목사와 군자녀 기도모임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군 장병들에게 보낼 예수님 사랑을 듬뿍 담은 성탄선물 50박스를 포장하여 발송했다. 영하의 날씨에 최전선에서 국토방위에 수고하는 장병들과 주님의교회 성도들 가운데 군복무중인 자녀들에게 보내는 선물로, 선물은 주로 신세대 장병들이 좋아하는 좋은생각, 핸드



크림, 핫팩, 초콜릿, 초코파이 등으로 구성했으며, 코로나19로 지친 병영에서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병영생활에 추억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했다.

함줄함줄

2021 함글함글 팀
송년후기

모임과 흠어짐, 아마도 앞으로 계속될 세상

알파 변이 다음에, 베타 변이가, 베타 변이 다음에 감마 변이가, 감마 변이 다음에 델타 변이가, 그리고 무적의 델타 변이 다음에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기본적인 속성이 계속되는 유전자 돌연변이이니, 그 방향과 끝을 알기 어렵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모임과 흠어짐이 반복되었던 한 해를 보내며 함글함글 기자들의 소회를 모았습니다. (가나다 순)

함글함글

마스크를 벗는 날까지 최선을

그놈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자유롭지 못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거의 2년을 만나서 편집회의도 못하고 줌으로만 편집회의를 하고. 그래도 3주 간격으로 발행되는 <함글함글>이 빠짐 없이 발행되어 주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거리의 조용한 모습, 만날 수 없는 그리움이,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책상머리에 앉아 여러 결정을 하는 여러분들이 불만스럽기도 하지만.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으면 차라리 눈 딱 감고 기다리기라도 할 텐데요. 마스크를 벗는 날까지 방역 잘 지키며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함글함글 모든 식구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형섭 기자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 조금 더 많은 은혜

2021년의 <함글함글>은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짧은 원고나 기사만 가끔 써서 드리고 그 이후의 수고를 몰랐는데 한 면을 책임지고, 또 최종 편집을 하다보니 3~4주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그래도 그런 책임감 덕분에 생활 중에서 아이들의 말과 행동, 모습 등을 관찰하며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었고, 읽은 책의 좋은 구절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나누며 실천을 이끌어내는 <함글함글>이 되도록 기도하며 사역하겠습니다.

여진원 기자

코로나와 살아가는 방법 찾기

2021년은 여전히 코로나19란 것과 익숙해지기 힘들었던 한 해였다. 오르락내리락하는 확진자 숫자와 수시로 바뀌던 방역수칙은 이런 삶이 언제 끝날지 불평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코로나19가 사라질 리는 만무했다. 지난 1년 열심히 <함글함글>을 발간했다. 주제를 고민하고 기사들을 모았다. 교회의 사역들을 기록했다. 모두들 열심히 살고 있었다. 코로나19는 싫어도 우리는 코로나와 살아가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다.

윤경수 목사

물에 비친 영상

1970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암병동>, <수용소 군도>와 같은 소설에서 독재 정부 아래 고통받는 인간들의 삶을 기록했다. 솔제니친은 짧은 산문시를 몇 편 남겼는데, 그중 <물에 비친 영상>이라는 작품이 있다.

빠르게 흐르는 물의 표면에서는 가깝든 멀든 어떤 것의 영상도 분명하게 알아볼 수 없습니다. 흙탕물이 아니더라도, 포말이 솟아오르지 않더라도, 재잘재잘 종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흔들리며 달려가는 잔물결에 비친 영상은 불안하고, 모호하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물이 흐르고 흘러 다다른 평온한 강어귀에서나,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늪, 약간의 떨림도 없는 작은 호수의 거울처럼 잔잔한 수면에서야 우리는 둔덕에 있는 작고 작은 나뭇잎을, 가지런한 구름의 깃털 하나 하나를, 푸른 하늘의 끝없는 심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멸의 진실을 분명하게 반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것인지요?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는 세상의 수면 위 모호한 영상에서 아직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없는 까닭은 아마도 우리가 여전히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다만 그 끝에 그분이 기다리고 계실 것을 믿을 뿐.

장경식 기자

교회일정

12/31(금)	송구영신예배
1/2(주일)	신년감사주일
1/3(월)~8(토)	신년특별새벽기도회

알립니다

1.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 2022.1.3(월) ~ 8(토)

(정부방역수칙준수/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로 드립니다)

주제 : “영혼을 뚫고 들어온 복음”

※개근작정 게시판 운영(1층 로비)

2.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필사 VOL.4

본문 : 사도행전

기간 : 2022.1.1(토) ~ 3.9(수)

필사책 수령 : 1층 로비(주중 무인판매대)

문의 : 한시영 목사(010.8935.5048)

3. 2021년 성탄절 맞이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기간 : 2021.12.19(주일) ~ 26(주일)

내용 : 2021년 성탄절 헌금은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워진 교회 내 교인, 지역사회 이웃, 미자립교회, 국내 일시 복귀한 선교사 가족을 지원합니다.

방법 : 성탄감사헌금 봉투 또는 헌금계좌 이용(헌금 계좌 이용 시 입금자명은 성탄의 '성'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예) 성-XXXXXXX)

문의 : (사)섬김과 나눔 사무국(02.415.5113)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심동욱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 메일 : hamletter@daum.net

